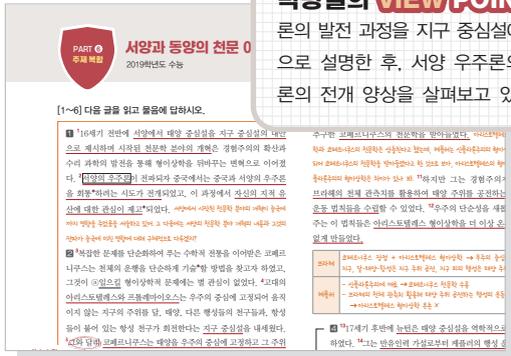


시즌 2

4월~5월

'홀수 옛 기출 분석서'로 평가원의 핵심 출제 요소를 폭넓게 학습



박광일의 VIEW POINT 이 지문은 서양 우주론의 발전 과정을 지구 중심설에서 태양 중심설로의 이행으로 설명한 후, 서양 우주론의 영향을 받은 중국 우주론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 있다. 16세기부터 대두된...

홀수 옛 기출 분석서 구성

- 박광일 선생님이 엄선한 평가원 필수 옛 기출 지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각 지문을 풀어 보아야 하는 이유, 지문과 문제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제공합니다.

홀수 옛 기출 분석서 활용법

- 시즌 1에서 학습한 내용을 적용해 옛 기출 지문을 꼼꼼하게 분석합니다.
- 평가원에서 반복적으로 묻는 핵심 요소를 파악하여 평가원의 관점을 체화합니다.

시즌 3

6월~8월

'홀수 기출 분석서' 2회독으로 취약 지문 영역 파악 및 집중 보완
- '홀수 옛 기출 분석서'도 취약 영역 강화에 활용 가능

취약 지문 영역 순위	독서	문학
1순위	과학·기술	고전산문
2순위	주제 복합	갈래 복합
3순위	사회	고전시가

(예시) 독서 2회독: '과학·기술' 영역 전 지문 기출 분석 → '주제 복합' 영역 전 지문 기출 분석 → '사회' 영역 전 지문 기출 분석

홀수 기출 분석서 2회독 방법

- '홀수 약점 CHECK 모의고사'의 약점 CHECK 분석표를 토대로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지문 영역을 파악하여 집중 학습합니다.
- 독서에서는 지문의 구조도를 그리며 정보를 체계화하는 훈련을, 문학에서는 영역별 핵심 출제 요소 및 접근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훈련을 권장합니다.

시즌 4

9월~11월

'홀수 기출 분석서' 3회독으로 취약 문제 유형 파악 및 집중 보완
- '홀수 옛 기출 분석서'도 취약 유형 강화에 활용 가능

취약 문제 유형 순위	독서	문학
1순위	구체적 상황에 적용	작품의 내용 이해
2순위	세부 내용 추론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3순위	세부 정보 파악	표현상, 서술상의 특징 파악

(예시) 독서 3회독: 전 지문의 '구체적 상황에 적용' 문제만 기출 분석 → 전 지문의 '세부 내용 추론' 문제만 기출 분석 → 전 지문의 '세부 정보 파악' 문제만 기출 분석

홀수 기출 분석서 3회독 방법

- '홀수 약점 CHECK 모의고사'의 약점 CHECK 분석표를 토대로 수능 전 반드시 보완해야 하는 문제 유형을 파악하여 집중 학습합니다.
- 수능 직전에는 최근 3~5개년 수능 및 올해 시행된 6월·9월 모의평가를 다시 분석합니다.



첫째 2009학년도~2019학년도 평가원 기출 중 박광일 선생님이 엄선한 필수 지문과 문항을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문제 책과 해설 책으로 분권하였습니다.

문제 책 엄선된 옛 기출을 영역별로 수록

해설 책 1. 문제 풀이를 위한 작품 분석 + 빈출 어휘 풀이 제공

1

박광일의 VIEWPOINT 『연행기』는 청나라에 사신으로 간 화자의 여정, 견지에서 가사 작품을 다룰 때는 화자의 실제 여정과 경험에 대한 반응을 구체적으로 2024학년도 수능에도 기형 가사인 『일동참유가』가 출제되었으므로 앞서 언급

— 홍순학, 『연행기』 —

→ 구도도: 공경하는 뜻으로 머리를 땅에 엮을 뿐 조어됨.
→ 상마면: 일을 마치고 떠나가는 외국 사신들을 위하여 배를 단 잔치.

2

1.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의 경이로운 풍경에 대한 감상을 장황하게 서술하고 있다.
- ② 학문과 관련된 사물을 나열하여 입신양명에 대한 화자의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객지에서 낯선 풍물 및 경함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고 외한할 때의 심정을 서술하고 있다.
- ④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한 다양한 사람들의 외양과 감정을 개성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구체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제시하여 귀국까지의 여정이 마무리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2.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이 지닌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 ② ㉡: 지시적 표현을 사용하여 상태와의 원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이동을 앞둔 여유로운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④ ㉠: 대구의 표현을 사용하여 새로운 계책을 마련한 기쁨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시간의 경과를 보여 주고 있다.

1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좌우에 탁자 놓아 난간 서책 쌓아 놓고
 ㉠**차명종과 차명약은** 질로 읊어 소리라며
 좌우에 당진(唐鎭) 깔고 답방석과 백진요며
 ㉡**이런지런 화류교의(華柳交椅)** 서로 마주 걸터앉고
 께기 **차명** 처음 인사 차 한 그릇 갖다 준다
 화살중에 대를 받쳐 가득 부어 권하기를
 파르스름 노르스름 향기가 만구하대
전희들과 유희들이 언어가 감지 않아
 말 한마디 못 해 보고 답답하니 않았으니
 A) 귀머거리 방어진 듯 몰고러미 서로 보다
 천하의 글은 같아 필답이나 하오리라
 당연(唐筵)에 먹을 갈아 양호수필(羊毫筆) 댈뻬 찍어
 시전지(詩箋紙)를 빼어 들고 글씨 써서 말을 하니
 묻는 말과 대답함을 글귀 절로 오라가락
 간담*을 상송하여 정국(情曲) 상통(相通)하는구나
 (중략)

④**을** 적에 **심은** 곡식 추수가 한창이요
 사공이 삼삼하여 가을빛이 꽤히 난다
 — 홍순학, 『연행기』 —

→ 구도도: 공경하는 뜻으로 머리를 땅에 엮을 뿐 조어됨.
 → 상마면: 일을 마치고 떠나가는 외국 사신들을 위하여 배를 단 잔치.

화자와 대상의 관계	청나라에서 사신 임무를 볼 후 조선으로 귀국하는 우리(조선의 사신)
상황?	청나라에 간 화자가 낯선 문물들을 볼 → 청나라 사신들과 밀접으로 소통함 → 사신 임무를 마치고 화자가 내리는 상을 받음 → 화자가 간식을 제공했으나 음식이 비어워 달지 않음 → 연회를 끝내고 조선으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떠남 → 조선으로 돌아가며 추수가 한창임을 보고 계절의 변화를 느낌

2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인공(人工) 풀이 나오자 **원공과 정벌 부인**이 다시 일어나 칭찬
 하기를.
 “이진신 덕택으로 **제**를 구하시 친작같이 길리 입신양명*
 하게 하시니 은혜가 백골단양*이로소이다.” **홍계발을** 구하고 **길리**
 을 **여유하게** 감시한 **위공과 정벌 부인**
 하며 슬픈 감회를 감지 못하기를 여공이 더욱 감사하며 공손히
 응답하더라. ㉠**원공과 모국에** 또한 일드러 언 길에 **평안히 행**
좌하심을 외하*라니라, 위공과 정벌 부인이며 기주후와 공벌 부
 인과 춘양도 또한 자리에 앉래하고 양음이 또한 마음에 기계함
 을 헤아리지 못함지라, 이날 큰 잔치를 배설*하고 삼 일음 즐기
 니라.
 // **정말** ㉡ **홍계발의** 부부가 **홍계발을** 길러 을 **여유하게** 고마워하며, 친지를
 밭에 다같이 옮김
 이때 **진지** 신하들을 불러보고 이르기를,
 “평공과 모국을 한 공벌 안에 살게 하리라.”
 하시고, 종남산 아래에 터를 뒹고 집을 지음새, 천여 칸을 풀일
 성지(不自成之)로 지으니, 그 장함을 헤아리지 못할지라, 집을
 (중략)

3

은, 신해물을 찾아 놓고

현대어 풀이

좌우에 탁자 놓아 많은 서책들을 쌓아 놓고
 차명종과 차명약은 스스로 소리를 내며
 좌우에 담요를 깔고 방석과 이불이며
 이쪽과 저쪽 나무의자에 청의 사신과 우리 사신들이 서로 마주
 걸터앉고
 청의 사람 처음 인사하며 차 한 그릇 갖다 준다
 차를 마시는 종자에 대를 받쳐 가득 부어 권하기를
 파르스름하고 노르스름하고 향기가 가득한데
 전희들과 유희들이 서로 언어가 감지 않아
 말 한마디 못 해 보고 답답하게 앉아 있으니
 귀머거리 방어진 듯 몰고러미 서로 바라보다
 한자는 서로 같아 글씨 쓰며 대화를 하오리라
 배루에 먹을 갈아 붓에 댈뻬 찍어
 종이를 빼어 들고 글씨 써서 말을 하니
 묻는 말과 대답하는 글귀가 절로 통하는구나
 속마음끼리 통하여 간담한 정이 서로 통하는구나
 (중략)

황제가 상을 주니 예부상서가 그 행사를 집행한다
 사신 세 명과 통역관과 말 관리자와 사내들까지
 은자에 비단 등을 선물로 차례로 받아 놓고

- 1 박광일의 VIEWPOINT**
- 박광일 선생님이 해당 기출을 선정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평가원의 최신 출제 경향을 바탕으로 눈여겨보아야 할 출제 요소를 제시하여 2026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바람직한 옛 기출 분석 방향을 제시합니다.
- 2 엄선된 지문의 전 문항 수록**
- 2009학년도~2019학년도에 평가원에서 출제된 기출 중 엄선된 지문을 영역별로 구성하고 지문의 전 문항을 수록하여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 1 작품 분석-운문**
- 운문 갈래에서 반드시 파악해야 하는 화자와 대상, 상황을 해설하여 문제 풀이를 위한 효율적인 작품 분석법을 안내합니다.
- 2 작품 분석-산문**
- 산문 갈래에서 반드시 파악해야 하는 인물의 심리, 장면별 주요 내용을 해설하여 문제 풀이를 위한 효율적인 작품 분석법을 안내합니다.
- 3 현대어 풀이**
- 고전시가 학습의 핵심은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원문 옆에 현대어 풀이를 배치하여 작품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째

최신 출제 경향에 부합하는 지문별 주제와 핵심 포인트를 분석하여 옛 기출의 접근 방안을 안내합니다.

넷째

문항별로 제시된 문제 유형과 정답률을 통해 체감 난이도를 확인하고 약점을 진단 및 보완할 수 있습니다.

2. 전 문항 자세한 해설 + 학습을 돕는 장치 수록

The collage displays several pages from the book with various annotations and diagrams:

- Page 1 (Top Left):** A flowchart titled '인물 관계도' (Character Relationship Diagram) showing relationships between '여공' (female worker), '부부' (couple), '국가' (country), and '총계일 = 평국' (total workday = average country). It includes sub-diagrams for '이의 보편성' (universality of this) and '사관 보내 불려와 출근 명령' (order to send officers and report for work).
- Page 2 (Top Right):** A list of questions and answers related to '시공간의 특징 파악 | 정답률' (Identifying features of time and space | Accuracy). It includes questions like '1. 뒷글의 시공간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d '2. 뒷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Page 3 (Middle Left):** A section titled '전체 줄거리' (Overall Plot) with a sub-section '전체 줄거리' (Overall Plot) and a paragraph of text.
- Page 4 (Middle Right):** A section titled '평가원의 관점' (Reviewer's Perspective) with a sub-section '평가원의 관점' (Reviewer's Perspective) and a paragraph of text.
- Page 5 (Bottom Left):** A section titled '이것만은 챙기자' (What to Watch Out For) with a list of key points to remember, such as '입신양명: 출세하여 이름을 세상에 떨침.' and '백골난방: 죽어서 백골이 되어도 잊을 수 없다는 뜻으로, 남에게 큰 은혜를 입었을 때 고마움이 뜻으로 이르는 말.'
- Page 6 (Bottom Right):** A section titled '모두의 질문' (Everyone's Questions) with a list of questions and answers, such as '1. 장면 전환의 기준은 무엇인가? 후 장면 전환이 빈번하다고 할 수 있으면 될 법이나 장면이 바뀌어야 하나요?' and '2. 일반적인 장면 전환의 기준은 시간과 배경의 변화와 출현주인 대상, 제재, 상황 등의 변화이다.'

4 전체 줄거리

작품 전체의 줄거리를 제공하여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제시된 지문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 인물 관계도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의 관계를 보여 주어 우호 관계, 적대 관계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 이것만은 챙기자

지문에서 중요하거나 자주 등장하는 어휘를 풀이하여, 작품 분석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휘력을 기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기틀잡기

문학 개념이 풀이를 통해 표현상,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 유형을 해결하고, 수능 국어의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2 모두의 질문

온라인 강의와 현장에서 수험생들이 많이 한 질문들과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3 평가원의 관점

수험생들의 이의 제기 등에 대한 평가원의 답변을 모두 수록하여 평가원의 관점과 출제 의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문제적 문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를 심화 분석합니다. 매력적 오답을 집중적으로 살펴 보면서 실전에서의 실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차

		기출 연도	문제 책	해설 책
PART 1 현대시	• 이육사, 「강 건너간 노래」 / 김광규, 「묘비명」 / 삶의 반영으로서의 시	2018학년도 수능	P.012	P.006
	• 오정환, 「고향 앞에서」 / 최두석, 「낡은 집」	2015학년도 수능B	P.014	P.010
	• 유치환, 「생명의 서 · 일장」 / 신경림, 「농무」	2014학년도 9평B	P.016	P.014
	• 김수영, 「폭포」 / 오규원,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 순례 11」 / 이시영, 「마음의 고향 6 - 초설」	2013학년도 수능	P.018	P.018
	• 윤동주, 「또 다른 고향」 / 오세영, 「자화상 · 2」 / 김기택, 「멸치」	2013학년도 9평	P.020	P.022
	• 박남수, 「새 1」 / 정일근, 「어머니의 그릇」 / 최두석, 「노래와 이야기」	2012학년도 9평	P.022	P.027
	• 윤동주, 「자화상」 / 고은, 「선제리 아낙네들」 / 김명인, 「그 나무」	2011학년도 수능	P.024	P.031
	• 백석, 「여승」 / 나희덕, 「못 위의 잠」 / 이수익, 「결빙의 아버지」	2009학년도 6평	P.026	P.036

PART 2 고전시가	• 홍순환, 「연행가」	2017학년도 수능	P.030	P.042
	• 신계영, 「전원사시가」	2016학년도 9평B	P.032	P.045
	• 박인로, 「상사곡」	2015학년도 수능A	P.034	P.049
	• 조위, 「만분가」	2015학년도 9평B	P.036	P.053
	• 이황, 「도산십이곡」	2015학년도 6평B	P.038	P.057

PART 3 현대소설	• 오정희, 「옛우물」	2016학년도 9평B	P.042	P.064
	• 현진건, 「무영탑」	2015학년도 수능AB	P.044	P.068
	• 김정환, 「모래톱 이야기」	2015학년도 6평AB	P.048	P.075
	• 이청준, 「소문의 벽」	2014학년도 수능B	P.052	P.080
	• 염상섭, 「만세전」	2014학년도 6평B	P.054	P.084
	• 박태원, 「천변풍경」	2013학년도 수능	P.056	P.088
	• 김동리, 「역마」	2013학년도 9평	P.058	P.092
	• 황석영, 「가객」	2013학년도 6평	P.060	P.097
	• 오영수, 「화산택이」	2012학년도 6평	P.062	P.102
	• 김원일, 「잠시 늙는 풀」	2011학년도 9평	P.064	P.107
	• 이청준, 「잔인한 도시」	2010학년도 9평	P.066	P.111
	• 신경숙, 「외딴 방」	2010학년도 6평	P.068	P.116
	• 김승옥, 「역사」	2009학년도 수능	P.070	P.120
	• 오상원, 「모반」	2009학년도 9평	P.072	P.124

		기출 연도	문제 책	해설 책
PART 4 고전산문	• 조위환, 「최척전」	2017학년도 6평	P.076	P.132
	• 작자 미상, 「토끼전」	2016학년도 수능AB	P.078	P.136
	• 작자 미상, 「홍계월전」	2016학년도 6평A	P.080	P.140
	• 작자 미상, 「소대성전」	2015학년도 수능A	P.082	P.145
	• 작자 미상, 「숙향전」	2015학년도 수능B	P.084	P.150
	• 작자 미상, 「유충렬전」	2015학년도 9평AB	P.086	P.155
	• 남영로, 「옥루몽」	2014학년도 수능B	P.090	P.160
	• 작자 미상, 「열녀춘향수절가」	2013학년도 9평	P.092	P.165
• 작자 미상, 「조웅전」	2009학년도 6평	P.094	P.169	

PART 5 갈래 복합	• 박봉우, 「휴전선」 / 배한봉, 「우포늪 약새」 / 김기림, 「주을은천행」	2019학년도 6평	P.098	P.176
	• 작자 미상, 「춘향전」 / 작자 미상, 「춘향이별가」	2018학년도 9평	P.102	P.182
	• 정철, 「관동별곡」 / 최익현, 「유한라산기」	2015학년도 수능B	P.106	P.189
	• 김승옥, 「무진기행」 / 김승옥, 「안개」	2015학년도 9평A	P.108	P.194
	• 박인로, 「누항사」 / 권구, 「병산육곡」 / 김용준, 「조어삼매」	2013학년도 9평	P.110	P.198
	• 한용운, 「알 수 없어요」 / 장석남, 「배를 매며」 / 정철, 「사미인곡」	2013학년도 6평	P.112	P.203
	• 곽재구, 「구두 한 켤레의 시」 / 김동환, 「산 넘어 남촌에는」 / 이광명, 「복천가」	2012학년도 수능	P.114	P.210
	• 이응휴, 「수려기」 / 작자 미상, 「텐동어미화전가」 / 이황, 「도산십이곡」	2012학년도 9평	P.116	P.216
	• 김동명, 「파초」 / 김광균, 「수철리」 / 윤선도, 「견회요」	2012학년도 6평	P.118	P.221
	• 정극인, 「상춘곡」 / 김광욱, 「율리유곡」 / 박규수, 「범희문회서도원림」	2011학년도 수능	P.120	P.227
	• 한용운, 「님의 침묵」 / 김광규, 「나뭇잎 하나」 / 작자 미상, 「춘면곡」	2009학년도 수능	P.122	P.233

PART 6 단	• 이강백, 「결혼」	2016학년도 6평AB	P.128	P.242
	• 이근삼, 「원고지」	2014학년도 9평AB	P.130	P.245
	• 함세덕, 「산허구리」	2012학년도 수능	P.132	P.248
	• 홍파 각색,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2009학년도 수능	P.134	P.252
	• 이강백, 「파수꾼」	2009학년도 9평	P.136	P.256



PART 1 현대시

문제 책 페이지	지문명	목표 학습 날짜	실제 학습 날짜
P.012	이육사, 「강 건너간 노래」 / 김광규, 「묘비명」 / 삶의 반영으로서의 시		
P.014	오장환, 「고향 앞에서」 / 최두석, 「낮은 집」		
P.016	유치환, 「생명의 서 · 일장」 / 신경림, 「농무」		
P.018	김수영, 「폭포」 / 오규원,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 순례 11」 / 이시영, 「마음의 고향 6 - 초설」		
P.020	윤동주, 「또 다른 고향」 / 오세영, 「자화상 · 2」 / 김기택, 「별치」		
P.022	박남수, 「새 1」 / 정일근, 「어머니의 그릇」 / 최두석, 「노래와 이야기」		
P.024	윤동주, 「자화상」 / 고은, 「선제리 아낙네들」 / 김명인, 「그 나무」		
P.026	백석, 「여승」 / 나희덕, 「못 위의 잠」 / 이수익, 「결빙의 아버지」		

PART 2 고전시가

문제 책 페이지	지문명	목표 학습 날짜	실제 학습 날짜
P.030	홍순학, 「연행가」		
P.032	신계영, 「전원사시가」		
P.034	박인로, 「상사곡」		
P.036	조위, 「만분가」		
P.038	이항, 「도산십이곡」		

PART 3 현대소설

문제 책 페이지	지문명	목표 학습 날짜	실제 학습 날짜
P.042	오정희, 「옛우물」		
P.044	현진건, 「무영탑」		
P.048	김정한, 「모래톱 이야기」		
P.052	이청준, 「소문의 벽」		
P.054	염상섭, 「만세전」		
P.056	박태원, 「천변풍경」		
P.058	김동리, 「역마」		
P.060	황석영, 「가객」		
P.062	오영수, 「화산댁이」		
P.064	김원일, 「잠시 늙는 풀」		
P.066	이청준, 「잔인한 도시」		
P.068	신경숙, 「외딴 방」		
P.070	김승옥, 「역사」		
P.072	오상원, 「모반」		

PART 4 고전산문

문제 책 페이지	지문명	목표 학습 날짜	실제 학습 날짜
P.076	조위한, 「최척전」		
P.078	작자 미상, 「토끼전」		
P.080	작자 미상, 「홍계월전」		
P.082	작자 미상, 「소대성전」		
P.084	작자 미상, 「숙향전」		
P.086	작자 미상, 「유충렬전」		
P.090	남영로, 「옥루몽」		
P.092	작자 미상, 「열녀춘향수절가」		
P.094	작자 미상, 「조웅전」		

PART 5 갈래 복합

문제 책 페이지	지문명	목표 학습 날짜	실제 학습 날짜
P.098	박봉우, 「휴전선」 / 배한봉, 「우포늪 약새」 / 김기림, 「주을온천행」		
P.102	작자 미상, 「춘향전」 / 작자 미상, 「춘향이별가」		
P.106	정철, 「관동별곡」 / 최익현, 「유한라산기」		
P.108	김승옥, 「무진기행」 / 김승옥, 「안개」		
P.110	박인로, 「누항사」 / 권구, 「병산육곡」 / 김용준, 「조어삼매」		
P.112	한용운, 「알 수 없어요」 / 장석남, 「배를 매며」 / 정철, 「사미인곡」		
P.114	곽재구, 「구두 한 켤레의 시」 / 김동환, 「산 넘어 남촌에는」 / 이광명, 「북찬가」		
P.116	이용휴, 「수려기」 / 작자 미상, 「텐둥어미화전가」 / 이황, 「도산십이곡」		
P.118	김동명, 「파초」 / 김광균, 「수철리」 / 윤선도, 「견회요」		
P.120	정극인, 「상춘곡」 / 김광옥, 「율리유곡」 / 박규수, 「범희문화서도원림」		
P.122	한용운, 「님의 침묵」 / 김광규, 「나뭇잎 하나」 / 작자 미상, 「춘면곡」		

PART 6 극

문제 책 페이지	지문명	목표 학습 날짜	실제 학습 날짜
P.128	이강백, 「결혼」		
P.130	이근삼, 「원고지」		
P.132	함세덕, 「산허구리」		
P.134	홍파 각색,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P.136	이강백, 「파수꾼」		



PART 1
현대시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선달에도 보름께 달 밝은 밤

㉠ 앞내강 짹짹 얼어 조이던 밤에

내가 부른 노래는 강 건너 갔소

㉡ 강 건너 하늘 끝에 사막도 닿은 곳

내 노래는 제비같이 날아서 갔소

못 잇을 계집애 집조차 없다가에

가기는 갔지만 어린 날개 지치면

㉢ 그만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겠쥬.

사막은 끝없이 푸른 하늘이 덮여

㉣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

㉤ 밤은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나니

한 가락 여기 두고 또 한 가락 어디뎀가

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강 건너 갔소.

- 이육사, 「강 건너간 노래」 -

*조상: 남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뜻을 드러내어 위문함.

(나)

한 줄의 시(詩)는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그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그리고 어느 유명한 문인이

그를 기리는 묘비명을 여기에 썼다

비록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 해도

불의 뜨거움 곳곳이 건디며

이 묘비는 살아 남아

귀중한 사료(史料)가 될 것이니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

시인(詩人)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

- 김광규, 「묘비명(墓碑銘)」 -

(다)

시(詩)는 인간의 삶을 반영한다. 시에서 반영은 현실과 인생을 모방한다는 의미에서 외부 현실을 시 속에 담아내는 것으로, 역사와 현실의 상황을 시를 통해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다. 여기서 반영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로서의 반영과 '있어야 하는 현실'로서의 반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역사와 현실의 모습을 사실 그대로 보여 주는 일상적 진실을 반영하는 것을 말하고, 후자는 일상적 현실을 넘어 화자가 지향하는 당위적 진실을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시에 대한 시 쓰기'라는 형식을 통해 시 그 자체를 반영하는 특수한 경우도 있다. 이때 반영의 대상은 외부 현실이 아니라 시 쓰기 상황이나 시를 쓰는 시인이 된다. 이 경우 시는 그 자체로 시론 혹은 시인론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성격의 작품에서 시는 노래나 기타 여러 갈래의 글로 표상되기도 한다.

이처럼 시인들은 시 속에 형상화된 세계를 통해 인간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시는 무엇을 말해야 하고, 시인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자기 성찰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하여 풍자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② 유사한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시적 대상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의지를 지닌 존재로 나타내고 있다.
- ④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자연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반어적 어조를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박광일의 VIEW POINT 현대사와 문학 이론으로 구성된 지문이다. 문학 이론은 함께 제시된 작품을 해석하는 관점을 제시하여 문제 풀이에 도움을 주므로, 문학 이론을 먼저 읽고 제시된 내용을 해석의 기준으로 삼아 작품을 읽으면 문제 풀이의 정확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문제 풀이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2. [A]의 관점에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극한의 추위를 드러내는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여, 화자나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현실의 모습을 사막으로 표상하여, 화자나 인물이 직면하게 될 공간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죽음의 상황을 가정하여, 화자에게 닥친 일상적 현실이 절망적인 상황임을 노래에 투영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④ ㉣: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를 통해, 일상적 현실이 희망적으로 바뀌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 밤과 무지개의 이미지를 대응시켜, 화자가 추구하는 당위적 진실에 대한 소망을 담아내고 있다.

3. (다)를 참고하여, (가)의 [노래와 (나)의 묘비명]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노래'가 시를 표상한다면, 이 '노래'는 (가)를 쓴 시인 자신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노래'가 시를 표상한다면, 이 '노래'는 시가 '집조차 없'는 처지에 있는 이의 삶에 다가서야 한다는, (가)를 쓴 시인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겠군.
- ③ '묘비명'이 시를 표상한다면, 이 '묘비명'은 (나)를 쓴 시인 자신이 추구하는 삶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의 인생을 반영하고 있겠군.
- ④ '묘비명'이 시를 표상한다면, 이 '묘비명'은 (나)를 쓴 시인이 시 쓰기를 통해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기 성찰을 하게 되는 계기라 할 수 있겠군.
- ⑤ '묘비명'이 시를 표상한다면, 이 '묘비명'은 한 줄의 시조차 읽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나)를 쓴 시인의 관점을 드러내는 소재라 할 수 있겠군.

MEMO



PART 3
현대소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가 태어난 날임을 상기시키는 아무런 특별함은 없다. 그해 봄날 바람이 불었는지 비가 내렸는지 맑았는지 흐렸는지, 이제는 층계를 오르는 일조차 잊어버린 치매 상태의 노모에게 묻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다산의 축복을 받은 농경민의 마지막 후예인 그녀에게 아이를 낳는 것은, 밤송이가 벌어 저절로 알밤이 툭 떨어지는 것, 봉숭아 여문 씨들이 바람에 화려르 흐트러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범상한 일이었을 것이다.

나는 막냇동생이 태어나던 때를 기억하고 있다. 깨끗한 바가지에 쌀을 담고 그 위에 마른 미역을 한 잎 걸쳐 안방 시렁에 엮어 삼신에게 바친 다음 할머니는 또다시 깨끗한 짚을 한 다발 안방으로 들여갔다. 사람도 짐승처럼 짚북대기 깔자리에서 아기를 낳나?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었던 마음속의 의문에 안방 쪽으로 가는 눈길이 자꾸 은밀하고 유심해졌다.

할머니는 아궁이가 미어지게 나무를 처넣어 부엌의 무쇠솥에 물을 끓였다. 저녁 내내 어둡고 웅성깊은 부엌에는 설설 물 끓는 소리와 더운 김이 가득 서렸다. 특별히 누군가 말해 준 적은 없지만 아이들은 무언가 분주하고 소란스럽고 조심스러운 쉬쉬함으로 어머니가 아기를 낳으려 한다는 눈치를 채게 마련이었다.

할머니는 언니에게, 해지기 전에 옛우물에서 물을 길어 와 독을 채워 놓으라고 말했다. 머리카락 빠뜨리지 마라. 쓸데없이 수다 떨다 침 떨구지 마라. 부정 탄다. 할머니는 엄하게 덧붙였다.

(중략)

한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 사십오 년이란 무엇일까. 부자도 가난뱅이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마술사도 될 수 있는 시간일 뿐더러 이미 죽어서 물과 불과 먼지와 바람으로 흩어져 산하에 분분히 내리기에도 충분한 시간이다.

나는 창세기 이래 진화의 표본을 찾아 적도 밀 일천 킬로미터의 바다를 건너 갈라파고스 제도로 갈 수도, 아프리카에 가서 사랑의 의술을 펼칠 수도 있었으리라. 무인도의 로빈슨 크루소도, 광야의 선지자도 될 수 있었으리라. 피는 꽃과 지는 잎의 섭리를 노래하는 근사한 한 권의 책을 쓸 수도 있었을 테고 맨발로 춤추는 풀밭의 무희도 될 수 있었으리라. 질량 불변의 법칙과 영혼의 문제, 환생과 윤회에 대한 책을 쓸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남과 쇠를 금으로 만드는 연금술사도 될 수 있었고 밤하늘의 별을 보고 나의 가야 할 바를 알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지금 작은 지방 도시에서, 만성적인 편두통과 임신 중의 변비로 인한 치질에 시달리는 중년의 주부로 살아가고 있다. 유행하는 시와 에세이를 읽고 티브이의 뉴스를 보고 보수적인 것과 진보적인 것으로 알려진 두 가지의 일간지를 동시에 구독해 읽는 것으로 세상을 보는 창구로 삼고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아들의 학교 자모회에 참석하고 일주일에 두 번 장을 보고 똑같은 거리와 골목을 지나 일주일에 한 번 썩탕에 가고 매주 목요일 재활 센터에서 지체 부자유자들의 물리 치료를 돕는 자원 봉사의 일을 하고 있다. 잦은 일은 아니지만 이름난 악단이나 연주자의 순회공연이 있을 때면 남편과 함께 성장을 하고 밤 외출을 하기도 한다.

갈라파고스를 떠올린 것도 엇그제, 벌써 한 주일 이상이나 화제가 계속되어 희귀 생물의 희생이 걱정된다는 티브이 뉴스에 비친 광경이 의식의 표면에 남긴 잔상 같은 것일 테고 더 먼지는 아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들에 붙여 놓은, '도도'라는 말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도도**가 무엇인가를 묻자 아들은 4백 년 전에 사라진, 나는 기능을 잃어 멸종된 새였다고 말했다. 누구나 젊은 한 시절 자신을 전설 속의, 멸종된 종으로 여기지 않겠는가. 관습과 제도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두려움과 항거를 그렇게 나타내지 않겠는가.

우리 삶의 풍속은 그만큼 빈약한 상상력에 기대어 부박하다. 삶이 내게 도태시킨 가능성에 대해 별반 아쉬움도 없이 잠깐 생각해 본 것은 내가 새로 보태어진 나이에 잠깐 발이 걸렸다는 뜻일 게다. 그러나 나는 이제 혼례에나 장례에 꼭 같은 한 가지 옷으로 각각 알맞은 역할을 연출할 줄 알고 내 손으로 질서 지워지는 일들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마늘과 생강이 어우러져 내는 맛을 알고 행주와 걸레의 질서를 사랑하지만 종종 무질서 속으로 피신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 오정희, 「옛우물」 -

1. 밑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건에 대한 객관적 진술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이야기 내부 서술자의 자기 고백적 진술을 통해 내면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인물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진술하여 갈등의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의문과 추측의 진술을 통하여 다른 인물에 대한 반감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감각적인 묘사를 통해 혼란스러운 시대적 분위기를 입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박광일의 VIEW POINT 대화가 없는 현대소설 지문의 특징을 잘 보여 주는 기출이다. 2025학년도 수능에서도 이처럼 인물의 내면에 초점을 맞춘 작품으로 이청준의 「배꼽을 주제로 한 변주곡」이 출제되었는데, 이러한 지문은 등장인물 간의 갈등 관계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기 더 어렵다고 느끼는 수험생들이 많다. 서술자 ‘나’의 태도에 주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학습하기 좋은 지문이다.

2. [도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기능’을 상실한 ‘도도’와 스스로를 가능성이 도태된 존재로 여겼던 주인공을 연관 짓는다는 점에서, ‘도도’는 주인공이 자신을 비추어 보는 대상이다.
- ② 주인공의 아들이 자기 물건들에 ‘도도’라는 이름을 붙이고 멸종된 종이라고 말한다는 점에서, ‘도도’는 주인공 아들의 불행한 미래를 암시하는 대상이다.
- ③ 주인공이 ‘도도’에 대해 ‘멸종된 새’로서 진화의 표본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떠올리는 점에서, ‘도도’는 주인공이 과학을 깊이 탐구했던 이력을 알려 주는 대상이다.
- ④ ‘도도’를 통해 바다 건너 외딴 ‘갈라파고스’ 섬의 희귀종을 연상하는 점에서, 주인공에게 ‘도도’는 외롭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단절된 인간관계를 환기하는 대상이다.
- ⑤ ‘도도’가 인간 앞에 ‘항거’하지 못하고 희생되어 ‘전설 속의 존재’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도도’는 주인공이 두려움을 느끼는 현실 사회의 ‘관습과 제도’를 상징하는 대상이다.

3. <보기>를 참고할 때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인간은 일생 동안 출생·성년·결혼·죽음의 과정을 겪는데, 이 과정에서 일상적 경험 세계와 현실 너머의 상상의 세계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탐색한다. 이때 두 세계의 어느 편에도 온전히 편입되지 못하고 경계에 선 인간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한다.

「옛우물」에서는 경계 상황에 놓인 중년 여성 인물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정체성을 탐색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그 탐색의 과정에서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삶의 다양한 양상에 대해 성찰한다. 이를 통해, 생명과 죽음이 서로 대립되고 분리된 것이 아니라 자연의 순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이 부각된다.

- ① 주인공이 주기적으로 학교나 재활 센터 등에 오가면서도 밤 외출을 하는 행위에서, 일상 세계에서 안정된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경계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읽을 수 있겠군.
- ② 죽음을 물과 불과 바람과 먼지로 산하에 흩어져 내리는 것으로 보는 주인공의 생각에서, 생명과 죽음이 자연의 순환 원리를 바탕으로 연결된 것이라는 인식을 엿볼 수 있겠군.
- ③ 막냇동생이 태어나던 때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준비하는 장면을 주인공이 떠올리는 것에서, 출생이라는 생의 첫 과정에 주목하며 정체성을 탐색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겠군.
- ④ 한 사람의 생애에서 사십오 년의 의미를 묻는 주인공이 아프리카나 광야를 상상하는 장면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일상과는 다른 세계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⑤ 질서 지워지는 일들에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무질서 속으로 피신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질서와 무질서 사이를 오가며 정체성을 탐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겠군.

PART 2

고전시가

문제 책 PAGE	해설 책 PAGE	지문명	문제 번호 & 정답		
P.030	P.042	홍순학, 「연행가」	1. ㉓	2. ㉕	3. ㉑
P.032	P.045	신계영, 「전원사시가」	1. ㉔	2. ㉔	3. ㉕
P.034	P.049	박인로, 「상사곡」	1. ㉑	2. ㉔	3. ㉕
P.036	P.053	조위, 「만분가」	1. ㉑	2. ㉒	3. ㉓
P.038	P.057	이황, 「도산십이곡」	1. ㉓	2. ㉔	3. ㉓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좌우에 탁자 놓아 만권 서책 쌓아 놓고

㉠자명종과 자명악은 절로 울어 소리하며

좌우에 당전(唐氈) 깔고 담방석과 백전요며

㉡이편저편 화류교의(樺榴交椅) 서로 마주 걸터앉고

거기 사람 처음 인사 차 한 그릇 갖다 준다

화창중에 대를 받쳐 가득 부어 권하거늘

파르스름 노르스름 향취가 만구하데

저희들과 우리들이 언어가 같지 않아

말 한마디 못 해 보고 덤덤하니 앉았으니

[A] 귀머거리 병어린 듯 물끄러미 서로 보다

천하의 글은 같아 필담이나 하오리라

당연(唐硯)에 먹을 갈아 양호수필(羊毫鬚筆) 덤뻑 찍어

시전지(詩箋紙)를 빼어 들고 글씨 써서 말을 하니

묻는 말과 대답함을 글귀 절로 오락가락

간담*을 상응하여 정곡(情曲) 상통(相通)하는구나

(중략)

황상*이 상을 주사 예부상서 거행한다

삼 사신과 역관이며 마두와 노자(奴子)*까지

은자며 비단 등속 차례로 받아 놓고

삼배(三拜)*에 구고두(九叩頭)*로 사례하고 돌아오니

상마연* 잔치한다 예부에서 지휘하기로

삼 사신과 역관들이 예부로 나아가니

대청 위에 포진하고 상을 차려 놓은 모양

[B] 메밀떡에 밀다식에 갈밤 머루 비자(櫃子) 등물(等物)*

푸닥거리 상 벌이듯 좌우에 떠벌였다

다 각기 한 상씩을 앞애다 받아 놓으니

비위가 뒤집혀서 먹을 것이 전혀 없네

삼배주를 마시는 듯 연파(宴罷)하고 일어서서

뜰에 내려 북향하여 구고두 사례한 후

관소로 돌아와서 회환(回還)* 날짜 택일하니

㉢사람마다 짐 동이느라 각 방은 분분하고

홍정 외상 셈하려 주주리는 지저권다

㉣장계(狀啓)*를 발정(發程)*하여 선래 군관(先來軍官) 전송하고

추칠월 십일일에 회환하여 떠나오니

한 달 닷새 유하다가 시원하고 상연(爽然)하구나*

천일방(天一方) 우리 서울 창망하다 갈 길이어

풍진이 분운(紛紜)한데 집 소식이 돈절*하니

사오 삭(朔)* 타국 객이 귀심(歸心)*이 살* 같구나

승문문 내달아서 통주로 향해 가니

㉤올 적에 심은 곡식 추수가 한창이요

서풍이 삼삼하여 가을빛이 쾌히 난다

- 흥순학, 「연행가」 -

*구고두: 공경하는 뜻으로 머리를 땅에 아홉 번 조아림.

*상마연: 일을 마치고 떠나가는 외국 사신들을 위하여 베풀던 잔치.

화자와 대상의 관계	청나라에서 사신 업무를 본 후 조선으로 귀국하는 우리(조선의 사신)
상황?	청나라에 간 화자가 낯선 문물들을 봄 → 청나라 사신들과 필담으로 소통함 → 사신 업무를 마치고 황제가 내리는 상을 받음 → 황제가 잔치를 베풀었으나 음식이 비위에 맞지 않음 → 연회를 끝내고 조선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꾸림 → 조선으로 돌아가며 추수가 한창임을 보고 계절의 변화를 느낌

현대어 풀이

좌우에 탁자 놓아 많은 서책들을 쌓아 놓고

자명종과 자명악은 스스로 소리를 내며

좌우에 담요를 깔고 방석과 이불이며

이쪽과 저쪽 나무의자에 청의 사신과 우리 사신들이 서로 마주

걸터앉고

청의 사람 처음 인사하며 차 한 그릇 갖다 준다

차를 마시는 종지에 대를 받쳐 가득 부어 권하거늘

파르스름하고 노르스름하고 향기가 가득한데

저희들과 우리들이 서로 언어가 같지 않아

말 한마디 못 해 보고 덤덤하게 앉아 있으니

귀머거리 병어린 듯 물끄러미 서로 바라보다

한자는 서로 같아 글을 쓰며 대화를 하오리라

벼루에 먹을 갈아 붓에 덤뻑 찍어

종이를 빼어 들고 글씨 써서 말을 하니

묻는 말과 대답하는 글귀가 왔다 갔다

속마음끼리 응하여 간곡한 정이 서로 통하는구나

(중략)

황제가 상을 주니 예부상서가 그 행사를 거행한다

사신 세 명과 통역관과 말 관리자와 사내종들까지

은자며 비단 등을 선물로 차례로 받아 놓고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며 황제에게 사례하고 돌아

오니

사신들을 위한 잔치한다 예부에서 지휘하기로
세 명의 사신과 통역관들이 예부로 나가니
대청 위에 진을 치고 상을 차려 놓은 모양
메밀떡에 밀다식에 곁밤 머루 비자나무 열매 등물
푸닥거리 상 벌이듯 푸짐하게 좌우에 차려 놓았다
각자 한 상씩 앞에다 받아 놓으니
비위에 맞지 않아 먹을 것이 전혀 없네
삼배주 마시듯 음식을 먹고 연회를 끝내고 일어어서
뜰에 내려와 북쪽을 향해 아홉 번 절하고 사례한 후
관소로 돌아와서 돌아갈 날짜를 정하니
사람마다 짐을 싸느라 각 방은 정신 없이 어수선하고
흥정하고 외상한 것을 계산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장계를 먼저 출발시켜 선례 군관에게 전송하고
칠월 십일일에 청나라를 떠나 조선을 향하니
한 달 닷새를 머물고 보니 시원하고 상쾌하구나
하늘 저쪽에 있는 우리 서울이 멀고 아득하다 갈 길이어
먼지와 바람이 날리는데 집 소식도 끊겼으니
4~5개월 동안 타국의 손님으로 지내면서 고향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화살 같구나
승문문 걸어가서 통주로 향해 가니
청나라로 올 때에 심은 곡식 추수가 한창이요
서풍이 부는 소리 쌀쌀하여 가을빛이 시원스럽게 난다

이것만은 챙기자

- *간담: 속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황상: 현재 살아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황제를 이르는 말.
- *노자: 사내중.
- *삼배: 세 번 거듭 절함.
- *등물: 같은 종류의 물건.
- *회환: 갔다가 다시 돌아옴.
- *장계: 왕명을 받고 지방에 나가 있는 신하가 자기 관하(管下)의 중요한 일을 왕에게 보고하던 일. 또는 그런 문서.
- *발정: 길을 떠남.
- *상연하다: 매우 시원하고 상쾌하다.
- *돈절: 편지나 소식 따위가 딱 끊어짐.
- *삭: 개월.
- *귀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 *살: 화살.

| 작품의 내용 이해 | 정답률 74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정답풀이

- ③ 객지에서 낯선 풍물 및 경험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고 회환할 때의 심정을 서술하고 있다.

화자는 청나라에서 '자명종과 자명약' 등 낯선 풍물을 본 일과 청나라 사신들과 필담을 나누고 황제가 베푼 잔치에 참석하는 등 체험한 일에 대해 '정곡 상통하는구나', '비위가 뒤집혀서 먹을 것이 전혀 없네' 등으로 정서를 드러낸다. 또한 '회환하여 떠날 때' '시원하고 상연'하다는 심정을 서술하고 있다.

✘ 오답풀이

- ① 자연의 경이로운 풍광에 대한 감상을 장황하게 서술하고 있다. 윗글에 자연의 경이로운 풍광에 대한 감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서풍이 샅샅이 하여 가을빛이 쾌히 난다'는 자연에 대한 감상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는 단순한 감상일 뿐, 경이로운 풍광에 대한 장황한 서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 ② 학문과 관련된 사물을 나열하여 입신양명에 대한 화자의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좌우에 탁자 놓아 만권 서책 쌓아 놓고'나 '당연에 먹을 갈아 양호수필 덤뻑 찍어' 등에서 학문과 관련된 사물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나열로 보기 어려우며 입신양명에 대한 관심과도 상관이 없다.
- ④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한 다양한 사람들의 외양과 감정을 개성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화자는 공식적 행사인 '상마연'에 참석해서 차려진 음식들을 보며 자신의 생각을 드러낼 뿐, 다양한 사람들의 외양과 감정을 표현하지는 않았다.
- ⑤ 구체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제시하여 귀국까지의 여정이 마무리되었음을 알려 주고 있다. '추칠월 십일일에 회환하여 떠나오니'에서 구체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천일방 우리 서울 창망하다 갈 길이어', '승문문 내달아서 통주로 향해 가니' 등으로 보아 귀국까지의 여정이 마무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모두의 질문

• 1~⑤번

- Q:** 화자가 청나라를 떠나 서울로 돌아오는 여정이 나타나고 있으니 귀국까지의 여정이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A:** 선지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귀국까지의 여정이 마무리되었음을' 알려 준다고 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한 시점과 여정을 마무리한 시점이 일치해야 한다. 화자는 '추칠월 십일일'에 머물던 곳을 떠나 출발하면서 '천일방 우리 서울 창망하다 갈 길이어'라고 하였다. 이는 화자가 청나라를 떠나면서 서울까지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고 한 것이다. 또한 '승문문'과 '통주'는 중국의 옛 지명이므로 이곳을 지나면서 '추수가 한창'인 광경을 본 것은 귀국까지의 여정이 마무리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런들 엇더허며 저런들 엇더허료
초야우생(草野愚生)*이 이러타 엇더허료
 허물며 천석고황(泉石膏肓)*을 고쳐 므슴 허료 <제1수>

연하(煙霞)로 집을 삼고 **풍월(風月)**로 벗을 사마
 태평성대(太平聖代)에 병(病)으로 늘거 가네
 이 중에 바라논 일은 허물이나 업고자 <제2수>

순풍(淳風)*이 죽다 허니 진실(眞實)로 거죽말이
인성(人性)이 어지다 허니 진실(眞實)로 올흔 말이
 천하(天下)에 허다영재(許多英才)를 소겨 말슴홀가 <제3수>

유란(幽蘭)이 재곡(在谷)허니 자연(自然)이 듯디 죠해
백운(白雲)이 재산(在山)허니 자연(自然)이 보디 죠해
 이 중에 **피미일인(彼美一人)***을 더욱 닛디 못허애 <제4수>

산전(山前)에 유대(有臺)허고 대하(臺下)에 유수(有水) | 로다
 떼 많은 갈매기는 오명가명 허거든
 엇더타 **교교백구(皎皎白駒)***는 멀리 무음 두는고 <제5수>

춘풍(春風)에 **화만산(花滿山)**허고 추야(秋夜)에 **월만대(月滿臺)**라
사시가흥(四時佳興)이 사롭과 혼가지라
 허물며 **어약연비(魚躍鸞飛)** 운영천광(雲影天光)*이야 어찌
 끝이 있으리 <제6수>

- 이항,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

*순풍: 순박한 풍속.
 *피미일인: 저 아름다운 한 사람. 곧 임금을 가리킴.
 *교교백구: 현자(賢者)가 타는 흰 망아지. 여기서는 현자를 가리킴.
 *어약연비 운영천광: 대자연의 우주적 조화와 오묘한 이치를 가리킴.

현대어 풀이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시골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다 한들 어떠하리
 허물며 자연 속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깊어 병이 된 것을 고쳐서 무엇
 하겠는가 <제1수>

안개와 노을을 집으로 삼고 바람과 달을 친구로 삼아
 태평스러운 세상에 병(자연 속에서 살고 싶은 마음)으로 늘어 가네
 이 중에 바라논 일은 허물이나 없이 살았으면 하는 것이다 <제2수>

순박한 풍속이 다 사라져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거짓말이다
 인간의 성품이 (본래부터) 어질다고 하는 말은 참으로 옳은 말이다
 세상의 수많은 슬기로운 사람들을 어찌 속여서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제3수>

그윽한 난초가 깊은 골짜기에 피어 있으니 자연의 속삭임을 듣는 듯
 매우 좋구나

흰 구름이 산마루에 걸려 있으니 자연히 보기 좋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저 아름다운 한 사람(임금)을 더욱 잊지 못하네 <제4수>

산 앞에는 높은 대(낙시터)가 있고 대 아래에 물이 흐르는구나
 떼를 지은 갈매기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
 어찌하여 현자는 멀리에 마음을 두는 것인가 <제5수>

봄바람에 꽃은 산에 가득 피고 가을밤에는 달빛이 누대에 가득하구나
 사계절의 좋은 흥취가 사람과 마찬가지로
 허물며 고기는 물에서 뛰놀고 솔개는 하늘을 날며 흐르는 구름은
 그림자를 남기고 밝은 햇빛은 온 세상을 비추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어찌 끝이 있겠는가 <제6수>

이것만은 챙기자

- *초야우생: 시골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
- *천석고황: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몹시 사랑하고 즐기는 성벽(굳어진 성질이나 버릇).

화자와 대상의 관계	자연에 묻혀 살고 싶어 하는 사람(초야우생)
상황?	자연 속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깊음 → 자연 속에서의 허물 없는 삶을 추구 → 순박한 풍속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과 인간의 성품은 본디 어질다는 것에 대한 믿음 →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임금을 잊지 못함 → 자연을 즐기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 → 끝없는 자연의 아름다움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정답풀이

- ③ 제3수의 시적 대상을 제4수에서도 반복적으로 다룸으로써 주제 의식을 강화한다.

제3수에서는 '순풍'과 '인성'을 시적 대상으로 다루고 있는 반면, 제4수에서는 '유란', '백운', '피미일인'을 시적 대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시적 대상을 반복적으로 다루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풀이

- ① 제1수에서는 화자가 자신을 드러내고 삶의 지향을 제시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환기한다.
제1수에서 화자는 스스로를 '초야우생'이라고 칭하여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천석고황을 고쳐 므슴 호를' 통해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는 삶의 지향을 제시하여 주제 의식을 환기하고 있다.
- ② 제2수에 나타난 화자 자신에 대한 관심을 제3수에서는 사회로 확대하면서 시상을 전개한다.
제2수에서는 자연을 벗 삼아 허물 없이 살고 싶다는 자신의 소망을 말하고, 제3수에서는 순박한 풍속과 인간의 성품,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화자 자신에 대한 관심을 사회로 확대하면서 시상을 전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제4수와 제5수에서는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장면들을 배치하여 공간의 입체감을 부각하며 시상을 심화한다.
제4수에서는 난초와 흰 구름의 모습을, 제5수에서는 산 앞의 대와 그 아래에 흐르는 물, 갈매기들을 화자의 시선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때 이들 자연물을 다양한 공간적 표현을 사용해 묘사함으로써 공간에 입체감을 부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연에서 느끼는 즐거움이라는 시상이 심화된다.
- ⑤ 제6수에서는 화자의 인식을 점층적으로 드러내어 주제 의식을 집약한다.
제6수의 초장에서는 봄바람에 꽃이 가득 핀 산과 달이 뜬 가을밤의 풍경을 언급하며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중장에서 사계절의 흥취로 확대되고, 종장에 이르러서는 '어악연비 운영천광'이라 하여 자연의 섭리와 연결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삶의 추구라는 주제 의식으로 집약된다.

기름잡기

- ① 환기: 주의나 여론, 생각 따위를 불러일으킴.
- ⑤ 점층: 뒤로 갈수록 의미가 강하게, 비중이 높게, 강도가 크게 되도록 시어를 배치하는 방법.

문제적 문제

• 1-②, ③번

학생들이 정답 이외에 가장 많이 고른 선지가 ②번이다. 제2수에서 화자는 자연을 친구 삼아 허물 없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하였다. 그런데 제3수에서는 순박한 풍속이 죽었다는 것은 진실로 거짓말이고, 인성이 어진 것은 진실로 옳다며,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을 속여 말할 수 있는 나고 하였다. 화자는 제2수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소망을 나타낸 것과 달리 제3수에서는 세상의 풍속과 인성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화자의 관심이 자기 자신에서 사회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낯선 고어에 겁먹지 말고, 아는 시어들을 위주로 시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면 선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한편, 매력적 오답 ②번 외에 다른 선지를 고른 학생들도 많았다. 이는 정답인 ③번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나머지 선지 중 정답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일 것이다. ③번을 보면 '제3수의 시적 대상을 제4수에서도 반복적으로 다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제3수에서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제4수에서 다시 등장해야 한다. 그런데 제3수의 시적 대상인 '순풍', '인성'과 같은 시어가 제4수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③번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선지를 꼼꼼하게 보지 않고, '대상'이 '반복'된다는 두 단어에만 집중했다면, 제3수에서 '진실'이라는 시어가 반복되고, 제4수에서는 '자연'이라는 시어가 반복되니 적절한 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선지의 의미를 꼼꼼히 파악하며 읽는 연습을 해야 한다.

정답률 분석

	매력적 오답	정답		
①	②	③	④	⑤
7%	11%	68%	9%	5%

PART 4

고전산문

문제 책 PAGE	해설 책 PAGE	지문명	문제 번호 & 정답				
P.076	P.132	조위한, 「최척전」	1. ㉔	2. ㉕	3. ㉔		
P.078	P.136	작자 미상, 「토끼전」	1. ㉑	2. ㉕	3. ㉓		
P.080	P.140	작자 미상, 「흥계월전」	1. ㉔	2. ㉕	3. ㉓		
P.082	P.145	작자 미상, 「소대성전」	1. ㉑	2. ㉑	3. ㉔	4. ㉔	
P.084	P.150	작자 미상, 「속향전」	1. ㉓	2. ㉕	3. ㉔		
P.086	P.155	작자 미상, 「유충렬전」	1. ㉔	2. ㉕	3. ㉓	4. ㉔	5. ㉑
P.090	P.160	남영로, 「옥루몽」	1. ㉓	2. ㉓	3. ㉑	4. ㉕	
P.092	P.165	작자 미상, 「열녀춘향수절가」	1. ㉕	2. ㉕	3. ㉔	4. ㉔	
P.094	P.169	작자 미상, 「조웅전」	1. ㉕	2. ㉔	3. ㉕	4. ㉔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공이 물러 나오자 위공과 정렬 부인이 다시 일어나 칭찬하기를,

“어지신 덕택으로 계월을 구하사 친자식같이 길러 입신양명* 하게 하시니 은혜가 백골난망*이로소이다.” 흥계월을 구하고 길러 준 여공에게 감사한 위공과 정렬 부인

하며 슬픈 감회를 금치 못하거늘 여공이 더욱 감사하며 공손히 응답하더라. ㉠평국과 보국이 또한 엮드려 먼 길에 평안히 행차하심을 치하*하더라. 위공과 정렬 부인이며 기주후와 공렬 부인과 춘랑도 또한 자리에 참례하고 양운이 또한 마음에 기꺼함을 헤아리지 못할지라. 이날 큰 잔치를 배설*하고 삼 일을 즐기니라.

// 장면 끊기 01 흥계월의 부모가 흥계월을 길러 준 여공에게 고마워하며, 잔치를 벌여 다같이 즐김

이때 천자 신하들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평국과 보국을 한 궁궐 안에 살게 하리라.”

하고, 종남산 아래에 터를 닦고 집을 지을새, 천여 칸을 불일 성지(不日成之)*로 지으니, 그 장함을 헤아리지 못할지라. 집을 다 지은 후에 노비 천 명과 수성군 백 명씩 내려 주시고 또 채단과 보화를 수천 바리를 상으로 내려 주시니, 평국과 보국이 황은*을 축수하고 한 궁궐 안에 침소를 정하고 거처하니 그 궁궐 안 넓이가 십 리가 남은지라 위와와 거동이 천자나 다름이 없더라.

// 장면 끊기 02 황제가 평국(흥계월)과 보국에게 집과 재물 등을 배풀고 함께 살게 함

이때 평국이 전장에 다녀온 후로 자연 몸이 곤하여 ㉡병이 침중하니* 집안이 경동*하여 주야 약으로 치료하니, 천자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매우 놀라사 명의를 급히 보내어,

“병세를 자세히 보고 오라. 만일 위중하면 집이 친히 가 보리라.” 평국을 아끼며 걱정하는 천자

하고 어의(御醫)를 명하사 보내시니, 어의 황명을 받자와 평국의 침소에 와 병세를 진맥하니 병세 위중하지 아니한지라. 속히 약을 가르쳐 쓰라 하고 돌아와 천자께 사실을 아뢰더라.

어의 다녀와 아뢰기를,

“평국의 병세는 위중하지 아니하옵기로 약을 가르쳐 쓰라 하옵고 왔사오나 또한 괴이한 일이 있어 수상하여이다.”

하더라. 천자 놀라 묻기를,

“무슨 연고가 있느냐.” 평국에게 괴이한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A] 놀라는 천자

어의 땅에 엎드려 아뢰기를,

“평국의 맥을 보오니 남자의 맥이 아니오매 이상하여이다.” 평국이 여자인 것 같다고 생각하는 어의

천자 그 말을 들으시고 이르기를,

“평국이 여자면 어찌 적진에 나가 적진 십만 대병을 소멸하고 왔으리오. 평국의 얼굴이 도화색(桃花色)이요, 체격이 작고 약하여 혹 미심하거니와 아직은 누설하지 말라.”

하고 자주 문병하시니라.

이때 평국이 병세 점점 나으매 생각하되,

‘어의가 나의 맥을 보았으니 필시 본색이 탄로날지라 이제는 할 일 없이 되었으니, 여복을 갈아입고 규중*에 몸을 숨어 세월을 보냄이 옳다.’

하고, 즉시 남북을 벗고 여복을 입고 ㉢부모 앞에 뵈어 느끼며 뺨에 두 줄기 눈물이 중형하거늘 부모 또한 눈물을 흘리며 위로하더라. 여성임이 탄로나 벼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을 짐작해 서러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평국과 부모

// 장면 끊기 03 어의가 평국이 여자인 것 같다고 천자에게 전하고 평국은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것이라고 생각하여 여복을 입고 규중에 살기로 함

[중략 부분의 줄거리] 이후 흥계월(평국)은 천자의 주선으로 보국과 혼인을 하게 되는데, 군영 및 집안에서의 사건 등으로 남편 보국과 갈등을 겪으면서 남편과 떨어져 홀로 지내게 된다. 남편 보국과 갈등을 겪는 평국

각설*. 이때 남관장이 장계(狀啓)*를 올리거늘 천자 즉시 뜰어 열어 보시니 하였으되,

[B] ‘오왕(吳王)과 초왕(楚王)이 반하여 지금 장안을 범하고자 하옵나이다. 오왕은 구덕지를 얻어 대원수를 삼고, 초왕은 장맹길을 얻어 선봉을 삼아 장수 천여 명과 군사 십만을 거느려 호주 북지 십여 성을 항복 받고 형주자사 완태를 베고 짓쳐오매 소장의 힘으로는 방비할 길이 없사와 감히 아뢰오니 엮드려 바라옵건대 황상은 어진 명장을 보내어 막으소서.’ 오·초왕의 공격을 자신의 힘으로 막을 수 없으니 명장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남관장

하였거늘, 천자 보시고 크게 곤란하사 온 조정의 신하들을 모아 의논하시되 우승상 명연태 아뢰기를,

“이 도적을 좌승상 평국을 보내어 방비하옵 것이니 급히 영을 내려 부르옵소서.”

천자 들으시고 한참 뒤에,

“평국이 전일에는 출세하였기로 불러 국사를 의논하였거니와 ㉣지금은 규중 여자라 어찌 영으로 불러 들여 전장에 보내리오.” 평국을 전장에 보내야 하는지 고민하는 천자

하시되 신하들이 아뢰기를,

“평국이 지금 규중에 처하오나 이름이 조야*에 있삽고 또한

작록*이 영구하오니 어찌 혐의하오리오.”
하거늘, 천자 마지못하여 급히 평국을 영으로 부르시니라.

// 장면 끊기 04 적군이 침범했다는 소식을 들은 천자가 신하들의 의견에 따라 평국을 부름

이때 평국이 규중에 홀로 있어 매일 시비를 데리고 장기와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더니 사관이 나와 천자가 부르는 명을 전하거늘, 평국이 크게 놀라 천자의 부름에 놀란 평국 급히 여복을 벗고 조복으로 사관을 따라 어전에 이르러 천자 크게 기뻐하며 이르기를, 평국을 다시 만나 크게 기뻐하는 천자

“㉔경이 규중에 처한 까닭에 오래 보지 못하여 주야로 사모하더니 이제 경을 보매 기쁘기 헤아릴 수 없거니와 짐이 덕이 없어 지금 오초 양국이 반하여 호주 복지를 항복 받고 남관을 넘어 황성*을 범하고자 한다 하니 경은 마땅히 출사*하야 사직*을 안보*하게 하라.” 평국을 출병시켜 나라를 보전하려는 천자

하시되 평국이 없으려 아뢰기를,

“신첩이 외람하와* 폐하를 속이옵고 공후 작록을 받자와 영화로 지내옵기 황공하온데 죄를 사하시고 이토록 사랑하옵시니 신첩이 비록 우매하오나 힘을 다하여 폐하의 성운을 만분의 일이나 갚을까 하오니 근심하지 마옵소서.” 여자임을 숨긴 것을 용서하고 다시 출사를 명한 천자에게 감사하는 평국

하더라.

// 장면 끊기 05 천자는 평국에게 출사를 명하고, 평국은 이를 받아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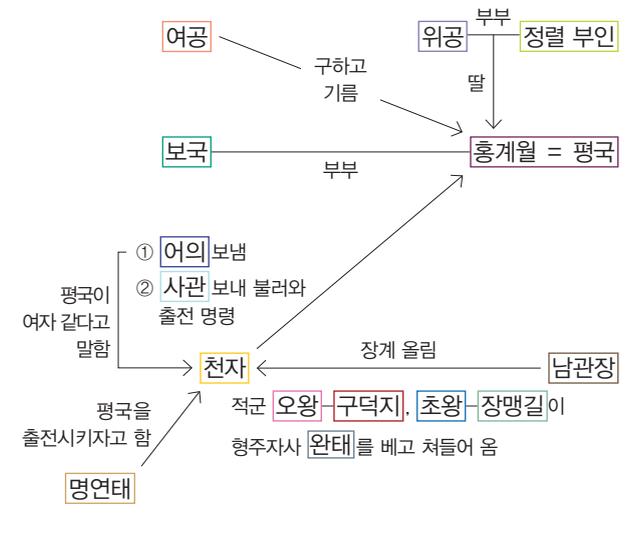
- 작자 미상, 「홍계월전」 -

- *불일성지: 며칠 안 되어 일이 이루어짐.
- *장계: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일이나 문서.

전체 줄거리

중국 명나라 때 홍 시랑과 양 부인의 딸 계월은 북방 절도사의 반란으로 가족과 헤어진다. 난을 피해 도망치던 계월은 수적에게 잡혀 강물로 던져졌으나, 여공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다. 계월은 여공의 양아들 평국이 되어 여공의 친아들 보국과 함께 자라나며, 각각 장원과 부장원으로 급제한다. 계월은 전쟁에 나가 공을 세우면서 부모와 상봉하고, 천자는 계월의 부모를 위국공과 정렬 부인으로 봉한다. 계월의 부모는 여공에게 감사를 표하고, 큰 잔치를 연다. 전장에서 돌아온 계월은 병이 나고, 천자가 보낸 어의에 의해 여자임이 탄로난다. 천자는 계월을 용서하며 보국과의 혼인을 중매하고, 마지못해 혼인한 계월은 보국과 불화를 겪는다. 그러다 다시 오랑개가 침범하자 계월은 천자의 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고, 천자와 보국의 목숨을 구한다. 이후 계월은 대사마 대장군의 지위를 받고, 보국과도 행복하게 산다.

인물 관계도



이것만은 챙기자

- *입신양명: 출세하여 이름을 세상에 떨침.
- *백골난망: 죽어서 백골이 되어도 잊을 수 없다는 뜻으로, 남에게 큰 은덕을 입었을 때 고마움의 뜻으로 이르는 말.
- *치하: 남이 한 일에 대하여 고마움이나 칭찬의 뜻을 표시함.
- *배설: 연회나 의식에 쓰는 물건을 차려 놓음.
- *황은: 황제의 은혜.
- *침중하다: 병세가 심각하여 위중하다.
- *경동: 놀라서 움직임.
- *규중: 부녀자가 거처하는 곳.
- *각설: 주로 글 따위에서, 화제를 돌려 다른 이야기를 꺼낼 때, 앞서 이야기하던 내용을 그만둔다는 뜻으로 다음 이야기의 첫머리에 쓰는 말.
- *조야: 조정과 민간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작록: 관작과 봉록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어전: 임금의 앞.
- *황성: 황제가 있는 나라의 서울.
- *출사: 군대를 싸움터로 내보내는 일.
- *사직: 나라 또는 조정을 이르는 말.
- *안보: 편안히 보전됨. 또는 편안히 보전함.
- *외람하다: 하는 행동이나 생각이 분수에 지나치다.